

# 고대인은 왜 그토록 보라색에 집착했을까



박성천 기자  
추천하는 책

## 세계사를 바꾼 화학 이야기

오미야 오사무 지음, 김정환 옮김

알렉산드로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에 주석을 단 이로 알려져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을 가르쳤던 당시 리케움의 원장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정작 알렉산드로스가 과학 기술에도 조예가 깊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그는 당대 그리스의 높은 염료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국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돼 위장전술을 펼쳤다. 바로 자신의 군대를 부상병으로 보이게 하는 것. 그는 서양쪽두서너에서 얻은 빨간색 염료인 알리자린을 활용해 병사들의 군복을 물들였다. 예상했던 대로 페르시아군은 그리스군이 약하다 여겨 방심했다. 알렉산드로스는 적군의 허를 찔러 승리를 거뒀다.

알렉산드로스가 광대한 제국을 건설한 원동력은 화학 지식에 있었다. 염료와 염색에 관한 화학 지식이 세계사 물줄기를 바꾼 명징한 사례다.



일본의 저자 오미야 오사무가 펴낸 '세계사를 바꾼 화학 이야기'에는 화학이 원동력이 됐던 재미있는 세계사가 등장한다. 저자는 인문학, 특히 역사에 지대한 지식과 관심을 토대로 이번 책을 저술했다. 와세다대학에서 응용화학을 전공한 이력이 큰 도움이 됐다. 특히 이번 책은 베스트셀러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 시리즈의 일곱 번째 책으로 출간됐다.

4500년 전 쿠푸 왕의 피라미드에는 화학 지식이 스며 있다. 인류 최대의 건축물 쿠푸 왕의 피라미드는 높이 약 139m, 각 밑면 길이 약 230m, 평균 무게 2.6t로, 돌 230만 개가 쓰였다. 장비나 기술도 발달하지 않은 당대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양의 돌을 자유자재로 다루었을까.

저자는 뛰어난 화학 지식이 발휘됐다고 단언한다. 그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먼저 인부들이 송곳을 이용해 잘라내고자 하는 돌의 위치에 일직선으로 구멍을 뚫는다. 다음으로 구멍에 나무 막대기를 꽂고 물을 붓는다. 얼마 후 나무 막대기가 부풀어 올라 팽창하면서 석재가 갈라진다.

우리는 문명의 상징을 대표하는 물질이다. 전구, 망원경, 현미경, 카메라의 생명은 모두 유리다. 인류 역사상 유리가 발명된 것은 기원전 3000년 메소포타미아 문명시대다. 당시 사람들은 보석의 모조품으로 구슬 같은 것을 만들었고 이후 무역을 통해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빵의 역사도 오래됐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효모를 이용해 빵을 만들어 먹었다. 물론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되기 전 신석기 시대에 인류는 밀과 보리 등을 가루로 만들어 빵을 구워 먹은 것으로 보인다.

맥주는 기원전 4000년 무렵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보급됐다. 이 지역 사람들은 곡물을 원료로 맥주를 제조했다. 이들이 맥주를 만드는 법은 처음에는 '우연히' 발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자는 "보리를 불에 담가 놓은 채 방치해두면 단맛이 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곡물을 끓여 스프로 만들어 먹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을 것"이라며 "좀더 오래 두면 윤이 따를 경우 거품을 내며 맥주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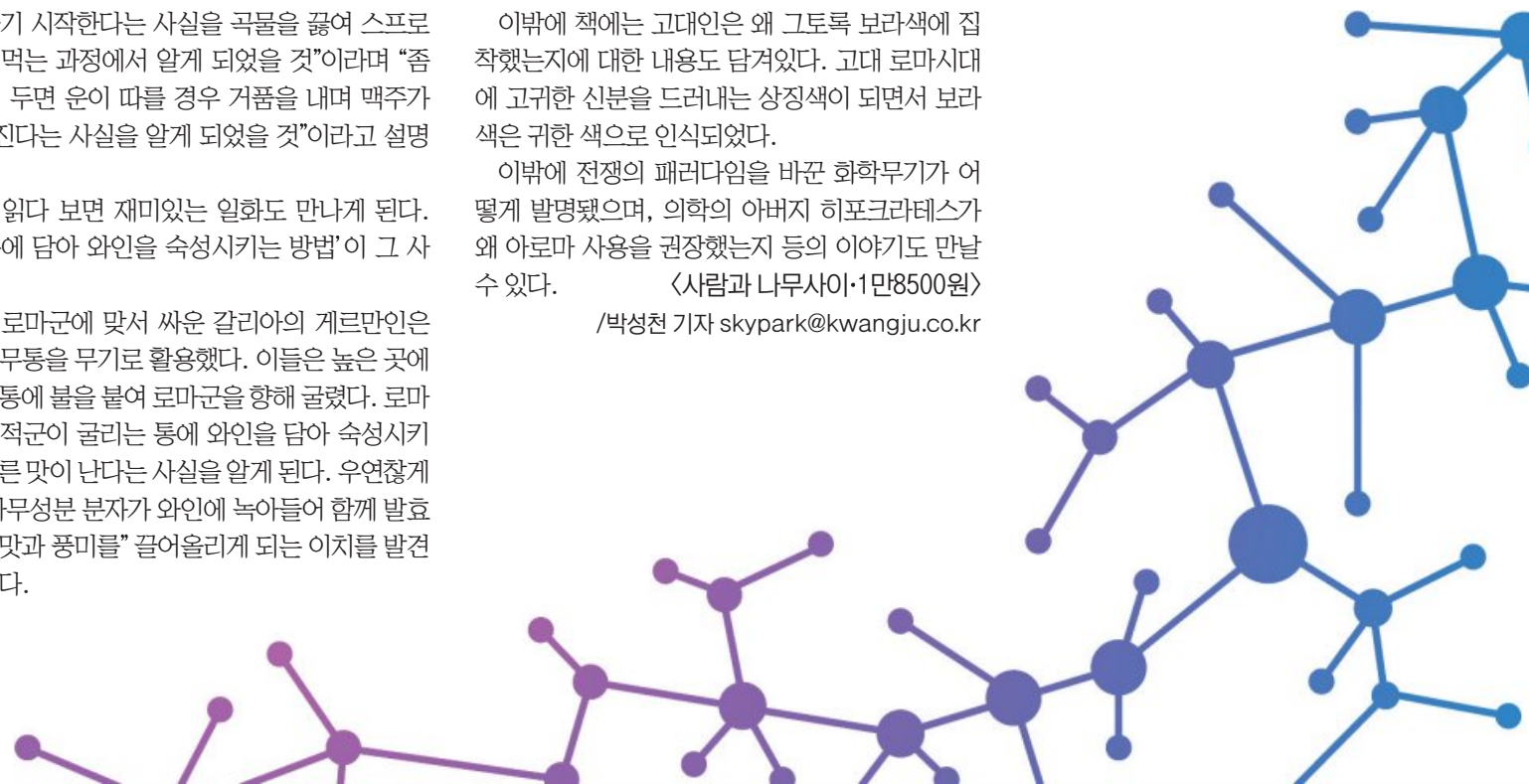
책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일화도 만나게 된다. '나무통에 담아 와인을 숙성시키는 방법'이 그 사례다.

고대 로마군에 맞서 싸운 갈리아의 게르만인은 당시 나무통을 무기로 활용했다. 이들은 높은 곳에서 나무통에 불을 붙여 로마군을 향해 굴렸다. 로마인들은 적군이 굴리는 통에 와인을 담아 숙성시키면 색다른 맛이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연찮게 "통의 나무성분 분자가 와인에 녹아들어 함께 발효되면서 맛과 풍미를 끌어올리게 되는 이치를 발견한 것이다."



이밖에 책에는 고대인은 왜 그토록 보라색에 집착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고대 로마시대에 고귀한 신분을 드러내는 상징색이 되면서 보라색은 귀한 색으로 인식되었다.

이밖에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꾼 화학무기가 어떻게 발명됐으며,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왜 아로마 사용을 권장했는지 등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사람과 나무사이·1만8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재와 빨강

## 편혜영 지음

작가 편혜영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김유정문학상, 김승옥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했다. 유명한 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이 문학적 업적을 오롯이 담보한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많은 대중과 평론가들부터 인정을 받았음을 전제한다.

지난 2000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작가는 지금까지 소설집 '아오이가든', '사육장 쪽으로', '밤이 지나간다'와 장편 '서쪽 숲에 갔다', '선의 법칙' 등을 발간했다.

이번에 편 작가의 장편소설 '재와 빨강'이 새롭게 재출간됐다. 이번 책은 장비의 '리마스터판' 시리즈 일환으로 출간됐다. 10년이 지난 소설 중 꾸준한 사랑을 받는 작품들을 엄선해 새로이 단장한 것이다.

지난 2010년 나온 '재와 빨강'은 마치 오늘의 코로나 팬데믹을 예견한 듯한 내용이 등장한다. 발열과 기침으로 서서히 퍼져 가는 원인 모를 팬데믹, 격리와 거리두기를 거처며 사람들 사이에 팽배해지는 불안 등이 그렇다.

작가 특유의 그로테스크한 상상력에 밀도 있는 문장으로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인간성 상실, 소통의 부재를 다룬다. 작품은 묵시록적이고 기괴한 요소들을 현실적인 공감적 요인과 결부시켜 풀어낸다.

제작회사에서 약품 개발원으로 근무하는 주인공은 파견근무를 발령받고 외국으로 떠난다. 그곳의 나라는 감기와 유사한 전염병이 창궐해 위생 검열이 강화된 상태다. 전염병으로 도시 전체가 마비되고 길가에는 쓰레기가 넘쳐난다. 그는 숙소에서 출근을 기다리지만 본사 담당자로부터 연락은 없다. (창비·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2050패권의 미래

## 해미시 맥레이, 정윤미 옮김

20세기 오일쇼크,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재앙이 다시 발생할 것인가. 소셜 네트워크로 펼쳐진 인류의 새로운 터전은 어떤 미래를 펼칠 것인가.

앞으로 30년 후인 2050년의 미래를 설정한 책 '2050패권의 미래'는 미래 패권을 결정하는 다섯 가지 키워드를 조망한다. 저자는 '인디펜던트'의 수석 경제 평론가이자 부편집장인 해미시 맥레이. 경제와 비즈니스, 사회의 글로벌 미래 트렌드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해온 저자는 그동안 세계가 처한 정치, 경제, 국제 관계 등 다양한 이슈를 다뤄왔다.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선정된 책은 끊임없이 출몰하는 세계, 재편되는 경제 질서를 주목한다. 저자는 다양한 전문 조사 기관의 통계와 예측 자료를 토대로 각국의 인구, 자원, 무역, 기술, 정부 등 다섯 분야를 주제로 삼아 논지를 전개한다.

오늘날 세계는 고령화가 급속히 전개되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젊은 세대가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아프리카를 비롯해 중동, 남미 등 신흥 국가로 양분돼 있다. 점차 다가오고 있는 기후변화의 위협은 탈탄소화 정과 맞물려 관심사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향후 미래는 국제 관계, 종교의 갈등으로 자칫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지난 50년간 봐 온 것처럼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은 얽혀있지만 연결 고리는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자는 "중국과 인도 역시 비슷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 두 나라는 이미 50여년간 갈등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 중국과 인도의 입김이 강해지고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가주의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다. (서울경제신문·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프랭크 게리-건축을 넘어서

## 폴 골드버거 지음, 강경아 옮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마블린 만로의 환생이다. 그스타일은 관능적이고, 감정적이고, 직관적이며 표현주의적이다." (건축평론가 허버트 무삼프)

스페인의 북부에 위치한 빌바오시는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제철소와 조선업으로 유명한 공업도시였다. 하지만 철강업이 쇠퇴하면서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걸어야 했다.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던 빌바오시는 집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1억 달러를 들여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 유치하기로 하고 유대인 출신 미국 건축가 프랭크 게리에게 설계를 맡겼다. '빌바오 효과'를 낳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태동이다.

1997년 프랭크 게리의 손끝에서 탄생한 빌바오 구겐하임은 개관과 동시에 건축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일약 글로벌 랜드마크로 떠올랐다. 실제로 인구 40만 명의 빌바오시는 매년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이 다녀가는 관광도시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지난 2018년부터 출간된 '현대미술의 거장' 시리즈의 18번째 주인공은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다. 폴 골드버거가 20대에 처음 게리를 만난 후 40년간 그와 나눴던 대화를 '프랭크 게리-건축을 넘어서'라는 한 권의 전기로 펴냈다. '뉴욕 타임스' 등 유수 매체에 게리의 초기작부터 기록해 온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이 큰 건축가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892쪽의 방대한 분량에 충실하게 담았다. 빌바오 구겐하임을 비롯해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파리 루이뷔통 재단건물 등 게리의 대표작들이 컬러 도판으로 실려 있어 보는 재미를 더한다. (윌유문화사·3만2000원)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 2023년 1월호

2022년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2023 길 위에서 길을 찾다

- 걸으며 맞이하는 계묘년의 희망
- 숲, 바다, 하늘 친구 삼아 새해의 심호흡
- 삶과 시간에 던지는 새로운 질문들을 만나

**향로 오디세이**

美路 味路

땅끝으로 떠나는 두근두근 희망여행 해남은 '시작의 땅'이다

충무공과 법정스님 만나러 가는 길 | 새해 세 출발 다짐하는 '짙길' '땅끝해안자연사박물관'과 '공룡박물관' | '대중사와' '미항사' 고구마 먹인 돼지고기, 발효 소시지 | 해남 풀고구마의 클린 변신 화산재과점&카페 화산

신년 기획-2023년 문화계 새해는 비엔날레의 해

4월 광주비엔날레 9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다양한 기획전

올동진의 '시네마 역사' ① '해바라기서' '체르노빌'까지, 우크라이나 비극을 예견하다

예향 초대석

'문학의 울림' 전하는 평론가 **신형철**

"시는 읽는 게 아니라 겪는 것"

신년 기획 키워드로 알아보는 2023 트렌드 **RABBIT JUMP**

에이문화기획 @ 헬싱키(상)

'발트해의 아가씨' 헬싱키 전쟁 새긴 요새가 치유 관광지로 변신

새해를 여는 화제의 전시 **이이남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전**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⑥ '도의 의인' 김광필의 학덕 기리는 대구 동동서원

기획 '모두를 위한 미술관' 공공조형물 ③ 경기도 연천 & 강원도 고성 산 정상 '그리팅맨' 관광객에게 손짓 군사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이미지를 바꾸다

기획 도시가 역사를 기억하는 법 ③ 제주 '제주의 눈물 담은 진실의 그릇' 4·3평화기념관에서 만난 비통의 역사, 아린 사연들